

배포일시	2020. 12. 3.(목) 09:00 (총 3매)	보도시점	2020. 12. 3.(목) 10:00
담당부서	국제협력담당관실	담당자	과장 이용섭 사무관 박승균
		전화번호	02-2181-0372 02-2181-0380

기상청, 미국과 손잡고 기후변화 감시 강화한다!

- 기상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‘제7차 한·미 기상협력회의’ 개최
- 양국 간 태풍, 위성, 인공지능 등 세부분야별로 협력하기로

- 기상청(청장 박광석)은 12월 2일(화), 한국과 미국의 기상기술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‘제7차 한·미 기상협력회의’를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개최하였다.
 - 이번 회의는 박광석 기상청장과 Louis Uccellini 미국기상청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대표단이 온라인으로 참석했으며, 앞으로 2년간 양국 간 기상기술 협력을 위한 분야별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.
- 이번 회의를 통해 △기후변화 감시 활동 △기상위성 자료 활용 및 처리 기술 교류 △인공지능 예측기술 공동연구 △항공기상 기술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.
 -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과 탄소 중립의 공동 목표를 가지고,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원인물질의 분석기술 교류와 자료 공유를 통한 지구대기 감시 활동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.

□ 특히,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는 태풍(허리케인 30개 발생, 대서양) 발생과 이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 감소를 위한 정확한 태풍 예측과 기상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논의하였다.

○ 또한, 천리안위성 2A호와 천리안위성 2B호 활용을 위해서 정확한 태풍 분석 등 위성자료 활용기술 개발과 기상위성 자료처리 기술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.

○ 더불어, 인공지능 기법이 기상예보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다.

□ 박광석 기상청장은 “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한-미 간 기상청의 협력은 기후변화 감시와 기상재해 예측에 있어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”라며, “미국과의 기상기술 협력으로 기후위기를 대처하고, 신뢰받는 대국민 기상서비스를 위해 기상기술 향상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.”라고 말했다.

□ 붙임: 제7차 한-미 기상협력회의 사진

붙임

제7차 한-미 기상협력회의 사진

